



지역 소식



봉사 선교사

각자의 자리에서 행하는 구원 사업



봉사 선교사들은 일상에서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관리 본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봉사 선교사는 은퇴나 결혼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이나 부부 단위로 봉사할 수 있으며, 일주일에 8시간 이상 봉사할 수 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최근 부름받은 자립 지원 서비스의 봉사 선교사 조양호 장로 · 이덕경 자매 부부, 송평종 장로 · 양계영 자매 부부, 복지부의 김동우 장로 · 김순남 자매 부부를 인터뷰했다.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립 지원 서비스의 이덕경 자매와 조양호 장로 부부, 복지부의 김순남 자매와 김동우 장로 부부, 자립 지원 서비스의 양계영 자매와 송평종 장로 부부

봉사 선교사로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조양호 장로 부부, 송평종 장로 부부: 우리는 자립 지원 서비스(본부)의 봉사 선교사입니다.* 공통적으로, 우리들은 와드 및 지부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단위 조직을 방문하여 자립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하거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송평종 장로 부부는 향후 새롭게 구성될 한국 내 자립 지원 서비스 자문단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조양호 장로 부부는 창업 관련 멘토단을 운영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김동우 장로 부부: 우리는 또 다른 복지 선교사인 최남용 장로 · 정근자 자매 부부와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특히 비축 전문가로서 여러 와드 지부를 방문하여 비축에 대해 훈련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봉사를 위해 갖춰야 할 능력이 있는가?

조양호 장로: 저는 현재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년 창업 센터에서 멘토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어 치료 분야의 교수로 일했던 것, 언어 장애를 지닌 분들에 대한 멘토 봉사 활동과 같이 제가 했던 모든 경험들이 봉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전 세계 가족 역사 센터, 감독의 창고, 통조림 공장, 취업 센터, 지역 사회 봉사 조직, 미디어 및 그 밖의 다양한 교회 조직에는 교회 봉사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 선교사의 능력에 따라 봉사 선교 사업의 임무와 기간은 다르지만,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실질적인 일, 봉사,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칠십인 정원회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리아호나, 2012년 9월호, 44쪽**

되고 있으며, 봉사하면서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 자립 지원 서비스의 선교사로 추천받은 뒤, 이 업무에는 좀 더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대학이나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립, 창업, 멘토링 등 관련 직업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습니다. 관리 본부에 문의를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함께 찾아 보면 자신의 재능과 시간에 적합한 일에 맞춰서 부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김동우 장로 부부: 선교 사업 이전에도 비축이라는 계명을 지키려 노력해왔는데, 마침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게 되면서 이전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봉사 선교사로서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늘 계명에 순종하고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분야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지식과 기술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은 분야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주십니다.

봉사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은?

조양호 장로 부부: 회원들이 자립에 대한 정확한 시야가 트이는 것을 볼 때,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을 볼 때, 그분들이 제게 “정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할 때 가장 기쁩니다.

송평종 장로 부부: 우리는 부산 선교부 회장, 성전 회장, 초대 취업 선교사, 복지 선교사로 봉사했으며, 지금은 자립 지원 서비스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 봉사해 오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회원들을 돕고 봉사하며 그에 비할 수 없는 큰 보람과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복지 선교사로 봉사하던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을 복지 선교사로서 도와 드렸습니다. 그분이 질병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을

결에서 지켜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김동우 장로, 김순남 자매: 2년 치 식량을 비축하라는 가르침은 아주 절박하고 중요한 계명입니다. 기상 이변, 지난 여름에 돌던 메르스와 같은 질병 앞에서도 비축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저희가 방문한 와드나 지부 회원들이 비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할 때, 비축하겠다고 결심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축을 통해 성도들 모두가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봉사 선교사를 계획하시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양호 장로: 큰 책임감과 무게를 느꼈지만, 부름을 열심히 수행할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선교사가 된 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세적인 일에서도 주님께서 풍부한 영감을 주셔서, 개인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기도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다음에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평생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덕경 자매: 저와 같은 주부들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체력’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려 해도 체력의 부족함을 느끼곤 합니다. 봉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과,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의지를 뒷받침할 체력에 달려 있습니다. ■

* 지난 8월 1일 이후로 부름받게 되는 자립 부문 봉사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단의 지시에 따라 봉사하게 되며, 스테이크 및 지방부 자립 자원 센터를 운영하는 책임을 맡는다. 다만 이들에 대한 훈련은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가 실시한다.



서울 선교부 성크슨 회장 부부

한국에 다시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시기에 한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집회소의 부지를 보니 마음이 들뜨고 신이 납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정말 행복합니다!”

성크슨 회장 부부의 말이다. 새로운 서울 선교부 회장 부부로 리차드 크레이그 성크슨(Richard Craig Sonksen) 형제와 멜리사 월본 성크슨(Melissa Walborn Sonksen) 자매가 부름받았다.

성크슨 회장과 그 가족은 한국과 오랜 인연을 맺어 왔다. 젊은 시절, 성크슨 회장은 1973년에서 1975년까지 한국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브라운 선교부 회장과 털 선교부 회장의 지도하에 진해와 부산

지역에서 주로 선교 사업을 했다.

“첫 번째 봉사 지역은 부산 지부였습니다. 동아대학교와 멀지 않았습니니다. 당시 지방부 회장으로 장재환 형제님께서 봉사하셨습니다. 저의 새로운 선교사 동반자 중 한 명은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자인 맥 윌버그였습니다.”라고 말하며, 성크슨 형제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의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전임 선교사 시절 뿐 아니라, 성크슨 형제는 1980년대에도 한국에 3년간 머물렀다. 결혼 후 은행장으로서 한국으로 발령받은 그는, 가족과 함께 그 3년간을 서울 종로구에서 살았다. 성크슨 자매는, “당시 강남에서 태어난 둘째 딸 스테파니는, 자신을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하곤 한다.”고 말한다.

부름을 받기 전 성크슨 회장은 팜콩 버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성크슨 자매 또한 제과 산업 분야의 사업가였다.

“처음에, 선교부 회장 부름이 왔을 때, 신나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제 아내가 “당신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향을 떠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우흐트도르프 회장님께서 우리를 선교부 회장으로 축복하신 후 모든 것이 괜찮겠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에게는 할 수 있다는 마음, 신이 나는 마음만 남았습니다.”

성크슨 회장은 열두 살에 가족과 함께 개종하였으며, 아내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만났다.

성크슨 회장 부부는 미국 뉴욕 시, 한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거주했으며, 부름받기 전 미국 콜럼버스 오하이오 북 스테이크 지역에 살았다. 이들 부부에게는 결혼한 두 딸이 있다. ■



일상에서의 '빛'의 역할에 비유하여, 산본 와드 새벽 세미나리 교사 이정민 지매와 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영혼을 깨우는 매일 아침

안양 스테이크 새벽 세미나리

신 선한 새벽 공기를 맡으며, 청소년이 한 명씩 교회 현관으로 들어선다. 뒤를 이어 들어오는 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어떤 땀 감독도 눈에 띈다. 아직 조금은 졸린 얼굴의 청소년을 이들의 교사가 환한 얼굴로 맞이한다. 안양 스테이크 금천1, 금천2, 산본, 안산, 안양 와드의 새벽 세미나리 풍경이다.

세미나리 매일반을 운영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특히 새벽에 매일반을 운영하는 것은 청소년 본인과 곁에서 돕는 부모, 세미나리 교사, 와드 지도자 모두에게 하나의 도전과도 같다. “제일 힘든 점이 뭐예요?”라고 청소년들에게 묻자, 하나같이 “피곤해요. 더 자고 싶어요.”라고 대답한다. 몸의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새벽마다 교회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전에서 습관으로, 습관에서 전통으로

산본 와드는 원래 가정 학습반을 운영하며 일주일에 한 번만 모이다가, 2015년 올해부터 새벽 세미나리(매일반)를 시작했다. 산본 와드 감독인 박종배 형제는, “새벽 세미나리를

운영하기에 앞서 조심스럽게 권유해 봤었죠. 교회까지 3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오는 청소년도 있으니까요. 결국 청소년들이 새벽 세미나리를 하겠다고 결정했고, 지난 1학기를 잘 참석해 주었습니다.”라고 전한다.

산본 와드 박권수 형제(중3)는 새벽 세미나리의 장점에 대해, “주말에만 느끼던 영적인 느낌을 평일에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히 좋은 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못 올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느낄 수 있으니까 피곤하더라도 꼭 옵니다.”라고 말한다.

금천1 와드와 금천2 와드는 새벽 세미나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요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학생은 20여 명으로, 학교 수업 못지않은 학생 수를 자랑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세미나리 졸업생을 배출해 내며, 새벽 세미나리라는, 하나의 ‘전통’을 세웠다.

이렇게 새벽 세미나리가 전통이 되기까지,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들은 학생들의 부모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일 아침 전쟁이에요. 피곤한 아이를 깨우고 먹이고 데려다 주고 ….” 두 명의 자녀가 세미나리에 참석 중인 김명녀 자매의 말이다. “하지만 세미나리에 참석할 때 아이들의 영적인 자신감이 높아지는 게 느껴져요. 그게 곧 세상적인 자신감으로도 연결되더라고요.”

고1 자녀를 매일 아침 세미나리에 데려다주는 강건욱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아이에게 세상적인 과제와 영적인 과제가 이중으로 부여된 것 같아서 안쓰러울 때도 많죠. 하지만,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선교 사업에 대한 소망을 갖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정말 새벽 세미나리의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세미나리를 통해 발견하고 변화하며

개종한 지 2년이 되어 가는 금천1 와드의 김태훈(고2) 형제는 세미나리는 ‘방패’와 같다고

여러분 중 많은 분이 세미나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세미나리에서 여러분이 얻는 것은 모두 다 여러분의 태도와 배우려는 열의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십시오. 저는 청소년 때 새벽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미나리는 제가 발전하고 간증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미나리는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믿고, 순종하며,
견디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5월, 126쪽.

이야기한다. “작년에 세미나리를 처음 하면서, 몇 번인가 결석을 한 적이 있어요. 매일 갈 때는 전혀 몰랐는데, 결석하니까 세미나리를 한 날과 안 한 날이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게을러지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세미나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을 하루종일 기억하게 돼요. 경전과 기도가 우리에게 감동을 입힌다면 세미나리는 방패까지 줘어 줍니다.”

산본 와드의 변경민 자매(고3)는 세미나리를 하면서 복음과 교리에 관한 진지한 질문과 흥미를 갖게 되었다. 또한 질문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법도 알게 되었다.

“얼마 전 주일학교에서 순종에 대해 배웠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혼자 생각도 해 보고 주일학교 교사님과 이야기도 해 봤지만 궁금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집에서 세미나리를 준비하면서 교리와 성약을 읽고 있는데 마침,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알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천천히, 궁금했던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본 건 제 생애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고3이 되고 새벽 세미나리를 시작했지만, 수업 시간에 돌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 밤에 일찍 자고 있고요. 또 새벽부터 세미나리를 하면 뇌 회전이 남들보다 더 빨리 시작된다는 느낌도 들어요. 저보다 어린 친구들을 보면, 좀 더 일찍 세미나리를 시작하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세미나리를 통해 결심하며

금천1 와드의 안광홍(고3) 형제는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을 개인 일지에 기록하면서 큰 배움을 얻었다. “새벽 세미나리를 기꺼이 참석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어느 날 학교 선생님이 일지를 쓰라고 노트를 주셨고, 뭘 쓸까 고민하다가 세미나리에서 배운 것을 적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 깨닫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기록하고 그것을 읽다 보니 세미나리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제 변화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가장 잘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가정에 화평을 가져왔다고 하세요.

아침은 계시받기 가장 적절한 시간이래요. 저는 세미나리가 작은 선교사 훈련원이라고 생각해요. 세미나리가 선교 사업의 준비 단계이기 때문이죠. 세미나리에 잘 참석하고 있는 저는 지금 선교 사업을 잘 준비하고 있는 거죠.” ■



세미나리가 끝난 뒤, 금천1 와드의 금천2 와드 세미나리 반원들



성현 형제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성현 형제입니다. 2010년, 저는 저와 제 가족이 미국 오리건 주에 살던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청소년 여러분들께 표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높은 표준을 요구받고, 모범이 되라고 권고받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는 모범이 하나님의 다른 양을 하나님의 결으로 데려올 수도

뒤에 스테이크 대회에도 갔는데, 그곳에는 그 친구들이 더 많이 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제가 본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청소년들이었기에, 그 친구들이 다니는 교회의 복음이라면 결코 그릇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이 저를 교회로 이끌었고, 마침내 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갖는 경건한 마음가짐, 우리가 학교에서 보이는 언어 습관과 행동, 우리의 표준과 모범, 이 모든 것들이 한 구도자가 갖는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높은 표준에 따라 생활하며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

이 기사는 성현 형제가 2015년 4월 26일 대전 스테이크 대회에서 연사로서 말씀한 내용의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미국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고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인 학생들에 대해 '무지하고, 도덕성이 부족한 아이들'이라는 정의마저 내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학생들 중에서, '이 애들은 다른 애들과는 다르게 참 괜찮다.'라고 여겼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였지만, 그들은 표정이 밝았고, 착하고, 저를 챙겨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시 교회 회원이 아니던 저는 이 교회를 처음 접하고 청소년 활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괜찮다고 여겼던 그 극소수의 친구들 중 일부가 그 모임에 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또 한두 달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언행이 하나님의 다른 양들을 그분의 결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지금 선교사님과 회원분들께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람들은 평생 여러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저는 안식일마다 저의 개종과 침례를 도와주신 매키 장로님과 퍼트 장로님, 그리고 미국 오리건 주 코발리스 제3 와드 회원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구도자 분들도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매일 생각하며 평생 여러분을 위해 기도드릴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드릴 것입니다. 2010년에 제가 그랬듯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장차 복음을 받아들이고 크게 축복받을 주님의 자녀들이 그분 결으로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



LDS 템플릿 +(lds.or.kr/gospel_library/templatebank/ldstemplateplus)



약도(lds.or.kr/locationofthechurch)

모임 홍보 포스터 및 집회소 약도 게시 글자만 수정하면 금세 포스터 완성!

회 원들이 구원 사업을 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회 홈페이지에 새로운 자료가 탑재되었다. 바로 각종 모임 홍보 포스터와 집회소 약도다.

포스터: LDS 템플릿 + 페이지

‘LDS 템플릿 +’ 페이지에는 각종 교회 모임과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포스터가 ‘마이크로 소프트웨어(MS Word) 형식’의 파일로 올라와 있다.(왼쪽 상단 웹페이지 주소 참고) 원하는 종류의 포스터 파일을 다운받은 뒤, 파일을 실행시키고 필요한 정보(워드 이름, 시간, 제목 등)를 적어 넣으면 포스터가 금세 완성된다. 또한, 컴퓨터 작업이 생소하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초보자를 위한

안내’와 ‘자주 묻는 질문’도 게시되어 있다.

약도: 교회 찾기 페이지

‘교회 찾기’ 페이지에는 전국 스테이크, 지방부, 와드, 지부의 약도가 실려 있다. PDF 파일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포스터에 삽입하거나 초대장을 만드는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만든 포스터 디자인 기부하기

직접 만든 포스터나 전단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포스터 파일을 이메일(kah_liahona@daum.net)로 보내거나, 교회 한국 관리 본부 홈페이지 담당자 (02-2232-1441)에게 문의한다. ■

즐거운 활동 모임을 홍보하고 싶은데 포스터 만들기가 어려워 난감했던 적이 있는가? 스테이크 대회 초대장에 스테이크 센터의 약도가 있다면, 구도자가 교회를 찾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전 세계에 “자립 지원 서비스”가 조직되어 운영된 지 만 1년이 넘었다. 그동안 한국의 모든 스테이크와 지방부에서도 “스테이크(지방부) 자립 위원회”가 조직되어 그 활동이 시작됐다.

한편, 많은 와드와 지부에서는 성인 회원들이 “자립으로 향하는 길”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제 그동안 번역 과정에 있었던, 취업, 창업, 직업 교육 분야의 워크숍 교재들이 출판 단계에 이름으로써, 머지 않은 시기에, 스테이크와 지방부, 또는 와드와 지부 차원에서 12주 과정 워크숍이 실시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자립 관련 워크숍 교재들과 워크숍 실시 방법에 대해 안내함으로써, 모든 회원이 자신에게 맞는 워크숍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참고로 이 워크숍 교재들은 교회 내의 취업, 창업, 직업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개발한 것으로서, 이 자료들을 활용해 본 여러 전문가들이 이 교재 및 프로그램이 매우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길 바란다.

자립 워크숍 교재 및 워크숍 실시 안내

취업, 창업, 직업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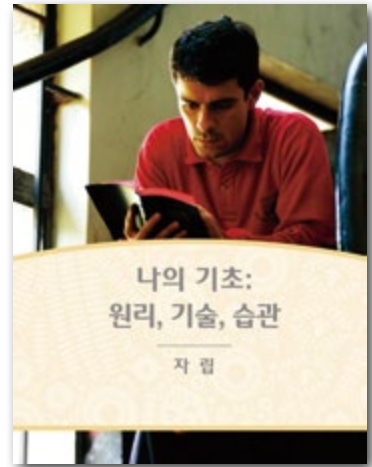
1. 자립으로 향하는 길(소요 시간: 약 1시간)

자기 개인이나 가족의 자립도를 직접 평가해 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세상적 자립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자립 수준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 회원들의 경우, 자신의 강점을 파악해 보고,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탐색해 본 후, 취업이나 창업, 직업 교육 워크숍 과정(12주 과정)에서 가장 알맞은 워크숍 과정을 선택하면 된다. 이미 경험해 본 상당수의 회원들이 이 과정을 대단히 유용한 워크숍 과정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교회는 모든 성인 회원들에게 1년이나 2년 주기로 이 “자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자기 평가를 실시해 보도록 권한다.

2. 나의 기초: 원리, 기술, 습관(소요 기간: 매회 20분씩 12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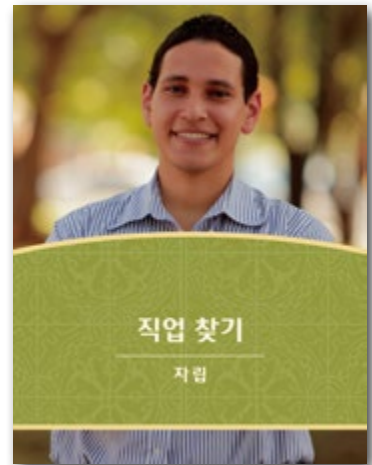
후기 성도로서 직업 생활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소 12가지를 선정하여 학습하는 실습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는 것이 직업 생활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서부터, 시간 관리법, 재정 관리, 책임감, 문제

해결 능력, 대인 관계 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결성 유지와 직업 생활의 관계, 지속적인 학습법 등을 자기 실습과 토론을 통해 배우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 '나의 기초' 워크숍은 주일학교 시간이나 가정의 밤 등에서 실시해 볼 수도 있고,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는 '직업 찾기' 워크숍, '사업을 시작하고 키움' 워크숍, '더 나은 일을 위한 교육' 워크숍에 부가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나의 기초' 워크숍을 이수한 회원들에게는 LDS 비즈니스 대학 총장과 교회 회장,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 감독(지부 회장)의 서명이 포함된 수료증이 수여되므로 출석부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12주 과정 모두 출석해야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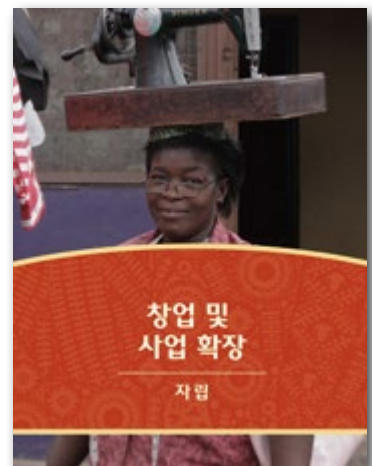
3. '직업 찾기' 워크숍(소요 기간: 매회 1시간 40분씩 12주)

'취업' 준비 과정 워크숍이다. 총 12주 과정 중에서 처음 6주 동안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 찾기", "자기 소개법 및 면접 준비법", "숨은 직업 찾기", "면접관에게 자신의 능력 보여 주기", "집중적인 구직 활동", "직장에서 성공하기" 등에 관해 실습과 토론을 통해 학습한 후, 나머지 6주 동안은 구직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보고하고 참여자들끼리 조언해 주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인문계 고등학생, 대학생, 재취업을 희망하는 조기 퇴직자를 비롯해, 구직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할 모든 회원들이 참여 대상이다. 이 워크숍 참여자들이 이 12주 과정을 성실하게 마치게 되면,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틈새 직업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성장한다는 것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다.



4. '창업 및 사업 확장 워크숍(소요 기간: 매회 1시간 40분씩 12주)

'창업 및 사업 확장' 준비 과정 워크숍이다. 총 12주 과정으로서, 이 워크숍을 통해, "창업이나 사업 확장 방법", "마케팅 방법", "재료 구입 및 판매가 산정 방법", "이윤 파악 방법", "수입금 관리 방법", "사업 진척 상황 파악 방법", "재투자법", "용자 필요성 확인", "고객 유치법", "이윤 증대 방법", "지속적인 사업 성장법"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이 워크숍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료증이 수여된다. 창업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회원이라면,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워크숍을 이수할 것을 권한다.





5. '더 나은 직업을 위한 교육' 워크숍(소요 기간: 매회 1시간 40분씩 12주)

'직업 교육' 준비 과정 워크숍이다. 총 12주 과정으로서, 대학이나 전문대학, 또는 직업 훈련 기관이나 직업 훈련 학원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이 워크숍을 통해 "자신의 자립에 어떤 유형의 직업이 도움이 되는지", "파악한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교육비나 훈련비 마련을 어떻게 하는지", "영구 교육 기금 신청을 해야 할 것인지", "학업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교실 밖에서도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이나 직업 교육이나 직업 훈련 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워크숍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영구 교육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들은 이 워크숍을 필수적으로 수료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한 팁

위에 소개한 워크숍들은 모두 스테이크 단위나 와드 단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소수의 회원들끼리나 가정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이 워크숍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 준비된 '진행자(facilitator)'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참여자'가 필수 요소이다. '진행자'는 워크숍 그룹('자립 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의 일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이크나 와드에서 지명한 회원 또는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진행자'는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도,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자'도 야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립 그룹'에서 가장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워크숍 교재의 순서대로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다. '나의 기초'반과 '창업 및 사업 확장' 워크숍 그룹에 대해서는 12주 과정 모두 참여한 회원들에게 LDS 비즈니스 대학 총장과 교회 회장,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 및 감독(지부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진행자'와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는 출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울러, '진행자'로 선정되면,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나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에게서 사전 훈련을 받게 된다. 또한 '스테이크 자립 전문가'는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의 협력을 얻어, 워크숍 이수자 중에서 보다 실무적인 조언을 원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 자문단과 멘토단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한국 자립 지원 서비스 책임자인 조현석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chohs@ldschurch.org/ 전화: 010-4874-9418



존 케이 카맥은 1955~1957년에 통신병으로 한국에서 복무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초기 선교 사업에 크게 일조했다. 그는 1984~2001년에는 총관리 역원으로, 이후 2012년까지 영구 교육 기금의 초대 관리 책임자로 봉사했다. 젊은 카맥 형제가 군복을 입고 서울 미8군 도서관 앞에서 있다.

선교사 활동과 존 케이 카맥

지난 호에는 최초의 선교사 도착 직후 선교부 회장이 보낸 편지를 살펴보았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그들이 APO(미군 우편)를 이용해 연락했고, 선교 사업과 관련해 많은 것들이 부족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 얼마 후 앤드리스 선교부 회장은 이렇게 지시했다.

“어떤 우편물도 APO를 통해 보내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작성하신 부산 방문에 대한 보고와 시급히 필요하다고 요청한 많은 물자 목록이 있는 5월 11일자 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만, 제가 조바심을 내며 애타게 기다렸던 그 편지는 선교 본부에 6월 6일이 되어서야 도착했습니다. 또 장로님이 보낸 5월 28일자 편지는 5월 31일에 선교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장로님이 APO를 통해 보낸 다른 두 통의 편지는 각각 10일 정도 걸려 도착했습니다. 한국 우편이 약간 비싸기는 하지만 장로님이 선교 본부로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앤드리스 회장)

파웰 장로에게 보낸 편지, 1956년 6월 15일자)

이렇듯 초기에는 지부 개설 및 부산 전도, 선교사 숙소 마련, 재정 절차 수립, 지도자 부름 등과 관련해 선교 본부와 연락할 일이 많은 시점이었지만 전쟁이 끝난 지 3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절이었기에 통신 수단을 비롯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선교사가 네 명이었던 1956년 8월 22일 당시에, 선교사 3진으로 도착한 네 명의 장로 중 한 명이었던 래리 옴 장로는 특기할 만한 이름을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미군 형제들의 도움을 참으로 많이도 받았다. 존 케이 카맥은 지금은 총관리 역원이지만 당시에는 젊은 병사였다. 그는 미군 통신대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앤드리스 회장에게 보낼 시급한 메시지나 질문이 있으면 우리는 미군 기지로 달려갔고, 카맥 장로는 지체 없이 일본 동경과 연결해 주었다. 지방부가 선교 본부와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있던 그 초기 시절에는 아주 큰 도움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는 이런 젊은 후기 성도 군인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Korean Mission Journals*, [2004년], 24~25쪽)

존 케이 카맥은 최초의 두 선교사가 도착하던 4월 20일에 대해서도 이런 기록을 남겼다. 그는 4월 6일에 선교사를 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가 허탕을 치고 돌아온 경험이 있었다.

“금요일(4월 20일)은 역사적인 날이었다. 콘스텔레이션 항공기가 멋지게 착륙하고 유도로에 들어서자 나는 한국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왜냐하면 데튼 장로와 파웰 장로는 한국 전체 역사에서 선교 사업을 위해 이 나라에 배정된 최초의 물몬 선교사였기 때문이었다. 김 박사, 꺾(Kwok) 형제, 이영범 형제, 존 봄(사진사) 형제와 나는 장로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존과 나는 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K-16(현재의 서울비행장)에 무사히 도착했었다.(4월 21일자 일지) 우리는 장로들을 SMP(서울 군사우체국)로 데리고 가서, 먹이고, 그들이 한국에서의 첫날 밤을 묵을



이 땅의 개척자들. 1956년 4월 20일 선교사 도착 후 약 45일이 지난 6월 3일에 파월 장로를 지부장으로 한국 지방부 산하에 서울 지부가 조직되었다. 김호직 한국 지방부장은 한남일인 1955년 8월 2일에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에 의해 이미 성별되었다.

숙소를 찾았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선교사들과의 긴밀하고 멋진 협력이 시작되었고, 이런 관계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다. 우리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이 맡은 중요한 사업을 시작하도록 도왔다. 바로 이런 연유 때문에 나는

1955~1957년 사이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느꼈던 것이다.”(*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존 케이 카백 장로가 2004년에 글쓴이에게 제공한 미출판 자료)

이 땅에 전임 선교사가 도착해 자리 잡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뿌린 씨와 심으신 나뭇가지는 여기저기에 준비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56년 6월 3일에 파월 장로를 지부 회장으로 하여 서울 지부가 (신문로에 있던) 서울 고등학교에서 조직되었다. (김원규) 교장은 회원들과 구도자들에게 극진한 친절을 베풀었고, 주례 예배 모임을 위해 고등학교 시설을 이용하도록 허락했으며, 교회는 그해 12월 20일까지 서울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보다가 성동구 유락동 예배당으로 옮겼다. 서울 서대문구 신문로의 예전 서울 고등학교 자리는 이렇듯 우리에게 역사적 의미가 적지 않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한국에서 선교사가 집행한 최초의 침례식을 통해 세 사람이 교회로 들어왔다.(지난 호 게재 사진 참조) ■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릉 지방부

속초 지부 회장: Joseph K Choi 장로(전임: Andrew L. Lanford)

동대문 스테이크

동대문 와드 감독: 이창엽 형제(전임: 김기연 형제)

춘천 와드 감독: 김종복 형제(전임: 문종식 형제)

전주 스테이크

전주 와드 감독: 박성민 형제(전임: 정기환 형제)

창원 스테이크

진해 와드 감독: 문재근 형제(전임: 박경섭 형제)

한국 교회 역사 위원회에서 디자인 크루를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 디자인 분야 -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가능자
- 동영상 분야 - Adobe Premiere Pro, Adobe After Effects 가능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2015년 9월 15일까지 소속와드, 성함, 연락처, 간단한 포트폴리오를 첨부하여 해당날짜까지 보내주세요.
연락처: 한국 교회 역사 부위원장 김대연 형제 | bohyun.park@ldschurch.org

